

學國的 發明獎勵事業의 必然性

全國 初·中學生 作文·漫畫 懸賞募集에 부쳐

우리의 日常生活에서 어느 것 하나 技術開發의 影響을 받지 않은 것이 없을만큼 新技術은 모두가 人間の 頭腦에서 發明創案되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新技術의 發明創案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며 國家百年大計 아래 汎國民의으로 發明思想을 鼓吹시켜 누구나 發明에 關心을 가질 수 있게끔 그 底邊을 擴大시키는데 있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特許制度는 歷史가 日淺한데다 그 運用面에 있어서도 發明創案을 誘導, 助長할 수 있는 機會가 짧았던 탓으로 그 重要性和 必要性이 浮刻되지 못했음 또한 事實이다. 그리하여 經濟開發 初期에는 發明創案을 통한 自體技術 開發보다는 外國技術의 模倣이나 一貫工程의 技術導入에만 依存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尖端技術製品의 開發 및 輸出을 위해서도 高度技術의 開發·蓄積으로써 國際競爭力을 加速化시킬 때가 온 것이다.

發明創案을 誘導하는 發明獎勵事業의 本質은 國民들에게 生活 속의 科學化 意識을 심어 보다 合理的이며 改善된 아이디어를 科學發展에 直結시키는데 있다. 따라서 發明獎勵事業은 그 對象 및 重要性에 비추어 볼 때 政府에서 또는 政府의 積極的인 支援下에 汎國民의으로 展開되어야 하며, 특히 자라나는 學生들을 對象으로 그 底邊을 擴大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效果의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趣旨에 따라 本會에서는 發明의 重要性을 報道機關·講演會·세미나 등을 통해 全國的으로 認識시켜 왔음은 물론 發明獎勵事業의 一環으로 全國 初·中學生들에게 發明思想을 昂揚시키기 위해 發明에 관한 作文과 漫畫를 懸賞 募集하여 왔다.

올해로써 열번째를 맞는 全國 初·中學生 作文·漫畫 懸賞募集은 지난해의 경우 全國 889個 學校에서 作文 2,090點과 漫畫 1,099點 등 모두 3,189點이 應募되었음만 보아도 앞으로 發明獎勵事業이 繼續 發展할 것은 의심할 餘地가 없다할 것이다.

1世紀의 發明獎勵制度 歷史를 갖고 있는 日本에서는 學國的으로 發明獎勵 및 創意性的의 開發을 위한 多樣한 事業을 展開하고 있으며 優秀發明人에게는 이른 바 恩賜發明賞 및 恩賜紀念賞 등을 授與함으로써 어린 時節부터 發明에 높은 關心을 갖게끔 誘導하고 있다.

그 結果 日本은 世界에서 工業所有權最多出願國이 될 수 있는 底力을 갖게 되었으며 技術이 뒷받침한 先進工業國으로 浮上했음은 우리가 너무도 잘알고 있는 事實이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産業資源이 不足한 어려운 與件을 克服하고 豊富한 人力, 優秀한 頭腦資源을 活用하여 技術革新을 통한 新製品을 開發·輸出하기 위해서도 그 土壤이 되는 發明獎勵事業을 더욱 알차게 擴大시켜 나갈 수 있도록 制度的으로나 財政的으로 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하겠음을 強調해 둔다. (W)